



KIA-LG 대결 팍 찬 야구장

2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와 기아의 경기가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연남뉴스

## 광주FC, '챔피언' 서울 울렸다

## 범虎 '맹호 본색'

### 3점 홈런 '왕' ... KIA 8-2 LG 제압

주앙파울로 결승골 1-0 ... 6경기만에 승리  
전남 드래곤즈는 상주에 0-1 아쉬운 패배



광주 FC가 홈팬들에게 두 번째 승리를 선물했다.

24일 FC 서울을 상대로 K리그 7번째 무대에 오른 광주 FC가 주앙파울로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3월5일 대구와의 데뷔전 승리 이후 6경기 만에 얻은 감격의 승리다.

허재원-정우인-이흥-유종현-김수범으로 두껍게 수비벽을 쌓고 서울 분쇄에 나선 광주는 전반 6분 주앙파울로의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반 12분 주앙파울로가 날린 슈팅이 다시 서울 골키퍼 김용대에 맞았지만 전반 34분 진짜골이 터졌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뺏은 미드필더 이승기가 빠른 스피드로 서울 진영으로 치고 올라갔다. 30m 가량을 전진한 이승기는 왼발로 골포스트 왼쪽에 있던 주앙파울로에게 살짝 공을 밀어줬다. 이승기에 기여한 박기동은 이날 활약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선정하는 2011 K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와 공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후반들어 서울의 공세 수위가 높아졌다. 후반 12분 서울의 데얀이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슈트를 시도했지만 골포스트를 벗어나면서 관중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서울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가 후반 22분 프리킥 찬스를 잡았다.

주앙파울로가 오른발로 감아찬 공이 골포스트를 맞고 빙겨나왔고 이승기가 곧이어 헤딩골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비껴나고 말았다.

끝이어 서울의 공세에 광주의 수비진이 뚫렸지만 데얀의 헤딩슛이 골포스트를 맞으면서 간신히 실점 위기를 모면했다.

후반 35분 광주가 김동섭을 빼고 조우진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비수 김수범이 경기 지연을 이유로 경고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광주는 수적 열세도 불구하고 골문을 단단히 틀어막으면서 천금같은 승리를 건졌다.

한편 연승에 도전했던 전남 드래곤즈는 상주 상무에 달미를 잡았다.

전남은 23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상주와의 7라운드 대결에서 전반 3분 김정우에게 골을 내주면서 1-0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전남의 최근 홈 3경기 연속무패(2승1무), 연속 무실점 행진도 막이 내렸다. 상주는 김정우의 리그 7호골로 7경기 연속무패(3승4무) 기록을 이어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공격수 주앙파울로(왼쪽)가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천금같은 결승골을 넣고 있다. <광주 FC 제공>



이범호의 한방이 KIA에 승리를 안겼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이범호의 결승 3점포를 앞세워 8-2의 승리를 거뒀다.

3회초 2사 이후 김원섭이 우중간을 꿰뚫는 2루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김선빈의 볼넷을 기록했지만 2사 1·2루에서 타점 1위 이범호의 타점본능이 발휘됐다. 이범호는 LG 선발 리즈의 초구를 받아 그대로 좌측타장을 넘기면서 한번에 3타점을 추가했다. 시즌 4호 홈런으로 24타점째를 기록했다.

4-2의 불안한 리즈가 이어지던 9회초, 상대 수비수의 실책으로 KIA가 대거 4점을 뽑는데 성공했다.

1사 1루에서 김상훈의 병살타성 타구를 처리하던 2루수 박경수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1사 1·2루가 됐다. 이종범의 우전 안타로 만루를 채운 KIA는 스윙 앤드 잭으로 LG의 허를 찌르며 1점을 더했다.

끝이어 행운의 3루타가 KIA의 승리에 해기를 박았다. 김선빈의 타구를 처리하던 우익수 이준영이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지만 공이 빠지면서 주자들이 모두 홈을 밟았다.

점수는 8-2가 됐다.

양현종은 4번째 선발 등판에서 첫 승을 신고했지만 6회를 넘기지 못했다. 1회말 1사 1·2루의 위기를 넘긴 양현종이 2회 선두타자 박용택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다시 위기를 맞았다. 정성훈을 삼진으로 돌리고 이화준을 내야 플라이로 잡아냈지만 이병규와 이대형의 연속안타가 터지면서 1점을 내줬다.

4회 삼진 두 개를 속으며 처음으로 삼자범퇴를 기록했지만 5회말 볼넷이 또 실점의 빌미가 됐다. 선두타자 이대형에게 볼넷을 허용한 양현종이 이택근에게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맞으면서 점수를 내줬다.

양현종은 6회말 1사2루에서 마운드를 김희철에게 넘기면서 퀄리티스타트를 끊는데 실패했다.

볼펜진은 철벽 계투로 양현종의 승리를 도왔다. 김희철-박경태-유동훈-박성호로 이어진 계투진은 3과3분의 2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만 허용하며 LG 타선을 봉쇄했다.

KIA는 23일 LG와의 주말 대결에서도 윤석민을 소방수로 투입해 승리를 거두면서 대구와 잠실로 이어진 원정 6연전길에서 3승3패를 수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동성고 왕중왕 진출

### 고교야구 주말리그 진흥고에 11-10 신승

### 화순고 4-1 순천고 제압

동성고와 광주일고에 이어 주말리그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성고는 23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진흥고와의 경기에서 11회까지 가는 연장 승부 끝에 11-10 승리를 거두며 왕중왕전 티켓을 따냈다.

5-3으로 앞선 9회말 진흥고 이진호의 2타점 적시타로 연장승부에 돌입한 양팀은 10회 승부차기에서 4점씩을 뽑아내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동성고가 11-10으로 승리하며 3승2패의 전적으로 왕중왕전 진출이 결정됐다. 진흥고 김성욱은 연장 10회 2사 1·2루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3

점포를 날렸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전남 라이벌 화순고와 순천 효천고의 경기는 4-1, 화순고의 승리로 끝났다.

선취점은 박건우의 솔로 홈런을 앞세운 효천고가 기록했지만 화순고는 7회 이종하의 동점 2루타와 문희서의 3루타로 역전에 성공하며 4-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2승3패가 된 화순고는 군산상고(2승2패)와 효천고(4패·탈락)의 남은 경기에 따라서 마지막 티켓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지난주 3승을 수확하며 가장 먼저 왕중왕전 티켓을 가져간 광주일고는 군산상고와의 경기에서 6회 10-0 폭타게임승을 거두며 4연승을 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스포츠 브리핑

#### 박기동 광주 FC 이달의 선수

골잡이 박기동이 광주 FC 이달의 선수(MVP)로 선정됐다.

박기동은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011 7라운드 서울과의 경기 하프타임에 광주기자단과 밝은안과21병원이 선정하는 이달의 MVP를 수상했다. 격려금 50만원과 함께 팀의 대형 프로필 사진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3월5일 광주의 역사적인 K리그 데뷔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2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3-2 승리에 기여한 박기동은 이날 활약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선정하는 2011 K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와 공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 정다래 평영 200m 우승

2010 광주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다래(서울시청)가 평영 200m에서 국내 최강임을 확인했다.

여수출신인 정다래는 24일 울산 문수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3회 동아수영대회 사흘째 여자 일반부 평영 200m 결승에서 2분 26초07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쳤다.

전남대 이지선은 여대부 배영 50m에서 30초83에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남대부 접영 100m의 우준영(전남대)과 여고 자유형 400m의 김지현(광주체고)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김하늘 2년7개월만에 우승컵

김하늘(23·비씨카드)이 2년7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하늘은 24일 경기도 용인의 수원골프장(파72·6448야드)에서 열린 현대건설-서울경제 여자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이현주(23)와 함께 6언더파 210타로 동타를 이룬 뒤 두 번째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2008년 3승을 올린 뒤 우승하지 못했던 김하늘은 2008년 9월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이후 오랜만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상금은 1억2000만원.

#### 박철성 50km 경보서 한국신

박철성(29·국군체육부대)이 마라톤보다 더 어렵다는 50km 경보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다시 세웠다.

삼성전자육상단은 24일 박철성이 중국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경보챌린지대회 50km 경보에서 3시간50분08초를 기록하며 30명의 선수 중 4위로 끝났다고 밝혔다.

박철성은 삼성전자 소속으로 현재 국군체육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

박철성은 2009년 4월 일본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50km에 도전, 3시간56분45초를 찍었다.